

“기독교에 있어서 지도자 교육”에 대한 논평

정 현 속

(수원대학교)

1. 21세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종합한 후 신학교육의 가장 큰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고도 발전된 기술중심 사회에서 영성 훈련 과 경건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에 신학생의 영성 적 자질과 사회의 영성 교육 적 상황은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신학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이점은 앞으로의 종교지도자 양성에 관련한 핵심적 문제를 적시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할 문제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한편 고도기술사회에서 종교 지도자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지배적인 요소로 멀티미디어 적 교육환경과 신학교육 관계를 논한 점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하여 여기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의 정곡을 잡은 것이라 하겠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교교육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 선생님께서는 발제 정도에만 그치시고 신학교육의 역사적인 회고를 하셨습니다.

3.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교파의 분열은 천차만별의 양성과정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목회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 적도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신학교육의 일반적인 학제를 소개하셨는데 1) 이론중심의 기초과정 2) 실천으로 이론을 학습하는 심화과정 3) 목회자로서 영성 과 지성의 계속교육, 이러한 교육단계는 교사, 의사,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 양성구조와 유사하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구조조정에서 의학계, 법조계 등은 전문대학원의 학제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육도 역시 유사한 전문대학원 체제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이점에 대해서 기독교 각 교파간에 논의나 통일된 의견제시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논의가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4. 신학교육의 두 중심문제는 전문직으로서의 목사를 양성할 것인가, 학자로서의 목사를 양성할 것인가 혹은 둘의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나 조화로운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과 색깔에 따라 신학대학이 학문과 경건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육을 해왔다고 지적하셨다. 한편 목회자는 교사, 의사, 법조인등의 전문직과는 다르게 일정한 전문성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지평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따라서 목사는 전문직임에는 틀림없으나 전문직의 특수한 대상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문직으로서의 목사를 배양하는 교육은 없다. 다만 목사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교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점은 앞서 말한 신학교육의 중심문제에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서 서 계신지 불 분명 하게 보입니다.

5. 대학의 정신에 관하여 역사적이고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은 국가와 사회 안에 있으나 국가와 사회를 초월해있다. 대학에서는 대학자체에 내재하고있는 최고의 정신을 추구하며 특수한 관심에 몰두하는 본질이 활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이제 국가와 사회로부터 대학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받고 대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들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에 눈뜨

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은 여기오신 모든분이 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이 회의에 주제에 맞추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종교지도자양성 대학들이 교육부의 감독과 통제아래 안주하지 말고 대학의 근본정신을 살리며 여러 교파와 종교를 아우르는 “종교지도자 교육 협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교육과 학위의 질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할 것이나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칩니다.